

교회들 앞장서 ‘쌀 나눔, 사랑 나눔’



LA총영사관 야외 주차장에서 진행된 사랑의 쌀 나눔 잔치에서 한 노인이 쌀을 전달받는 모습. ©지재일 기자

LA, OC지역서 사랑의 쌀 1차 나눔 잔치 열려

“사랑의 쌀 운동을 위해 솔선 수범한 한인사회, 기독교계 지도 자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운동이 타 도시에도 전해져 살기 좋은 한인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김재수 LA 총영사

미주 사랑의 쌀 나눔 운동, 2010 성탄절 사랑의 쌀 1차 나눔 잔치가 지난 18일 LA총영사관과 LA한인회관, 은혜한인교회, 샌디에고사랑교회에서 개최됐다. 나눔 잔치를 위해 김재수 총영사와 한미동포재단 김영태 이사장이 축사를 전했다. 변영의 목사가 대표기도, 송정명 목사가 환영 인사말을 전했다.

불우한 이웃 개인을 위해 열린 1차 나눔 잔치를 통해 총2,400포의 쌀이 1천여 명 이상의 불우 이웃들에게 전달됐으며 12월 30

일 개최되는 2차 나눔 잔치에서는 기독교를 비롯한 타 종교 단체 및 일반 단체 관계자들에게 1만 포 이상 전달될 예정이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A교회에서 왔다는 한 성도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 쌀 한 포대 구입하기도 쉽지 않았다”며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쌀을 나눠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성우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위해 15만불 성금 목표로 21일 현재 6만 724불이 모금이 됐다”며 30일까지 한인기업과 단체, 교회들의 지속적인 쌀 나눔 운동에 계속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18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사랑의 쌀 나눔 잔치는 OC교협 부회장 송규식 목사(그레이스

웨이브교회)의 기도, 박용덕 목사(OC 교협 회장), 한기홍 목사(OC 교협 증경회장)의 축사가 전해졌다. 한기홍 목사는 “쌀 한포의 가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음을 이웃들이 받아주기 원하며, 사랑의 쌀 운동을 통해 교회와 사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쌀 나눔 행사에는 엄영민 목사(총무 백낙균 목사(기독교방송 문화원 대표)와 부회장 손찬우 집사(OC 전도회연합회 회장)와 감사 김동석 장로(남가주빛내리교회)가 450포의 쌀을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오렌지카운티지역은 2차 쌀 나눔 잔치를 12월 30일(목) 오전 11시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개최

하고 600포의 쌀을 나눌 예정이다. 문의) 714-401-9874, 714-603-9827

2010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중기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회장 박용덕 목사), 오렌지카운티목사회(회장 손태정 목사), LA총영사관,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주최하며 미주성시화운동본부(회장 박희민 목사)와 홀리클럽이 주관한다.

문의: 213-384-5232 / 미주성시화운동본부(505 S. Virgil Ave. #160, LA. CA 90020) 체크: (Pay to) Holy City-사랑의 쌀

(지재일 기자)

**12월 30일자
신문 휴간**

‘미전도종족 선교위한 더 높은 부르심’

미주 한인청년학생 선교대회(GKYM Vision 2010)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천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샌디에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

번 선교대회는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학생들이 하나님의 더 높은 부르심(Higher Calling)을 발견하여 미전도 종족 선교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 열렸다. 강사로는 스티브 더글라스 목사(국제 CCC 총재), 손인식 목사(2010 GKYM 대표대회장), 등 다수 교계 및 선교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지재일 기자)



“돌아가시기 위해 나신 어린양”

민중기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총현선교회)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돌아가시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입니다. 그는 참 인간이

요 참 하나님인 살아있는 분이요, 인류의 허물과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 어린양으로 태어났습니다. 수수와 수양이 사람의 허물을 위하여 제단에 드려지듯이, 아기 예수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시려 오신 기이하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인 복음을 어두운 곳에 전하며 낮은 곳으로 임하는 나 자신이요, 교회요, 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아들을 제물인 어린양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LEE & KENT
LAW OFFICES OF LEE & KENT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지난 20년간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종합법률그룹으로서 고객 한분 한분께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상법 / 소송

- ▶ 민사 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
- ▶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 회사 설립, 계약 위반

파산법

-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 신용 문제 상담

이민법

-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 종교비자&종교이민, 가족이민
-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대표변호사 이문규

- LEE&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
- Univ. of Minnesota 법대 (J.D)대학원 졸업(1993년)
-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정회원
- 연방법원 및 세법관할 정회원 변호사
-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담당)
- 미주 상공인 총 연합회 고문 변호사
- 국제 Law Firm Couderc Brothers 근무
-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외 수천 건 해결

이문규법률그룹
LAW OFFICES OF LEE & KENT

대표전화 213-380-2828
IRVINE 949-442-8370

LA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904호
822-510-5200

◆ 동부·인랜드·벤추라 지역 교협 총회 개최 ◆

2011년도 새 회기를 위한 지역별 교역자협의회 총회가 개최됐다.

◆ 동부지역교역자협의회

동부지역교역자협의회(회장 강일용 목사)는 지난 14일(화) 동부 지역 중식당에서 총회 및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차기 회장으로 아름다운교회 고승희 목사가 결정됐으며, 부회장 김민섭 목사(엠마오장로교회), 총무 김병학 목사

진행한다. 고승희 목사는 "예년과 같이 교회를 섬기고 연합하는 일을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청년목회 경향이 있는 지역교회 목사들을 세워 청년사역자 세미나를 계획 중"이라 전했다.

◆ 벤추라카운티교역자협의회

이어 같은 날(14일)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 열린 벤추라카운티교역자협의회 총회는 차기 회장으로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

회를 열고 이민사회의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벤추라카운티에는 파우전 옥스장로교회(담임 이종수 목사), 예수한마음선교교회(담임 장승중 목사), 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담임 오정택 목사), 벤추라열린문교회(담임 김강인 목사), 씨미밸리한인교회(담임 반채근 목사), 벤추라카운티한인장로교회(담임 임진태 목사), 새생명장로교회(담임 이태호 목사), 벤추라감리교회(담임 최상훈 목사), 남가주에는



LA 동부지역교역자협의회 정기 총회 후 목회자와 사모 기념 촬영. ©지재일 기자

선거 없이 순서대로 임원, 화목과 섬김으로 지역교회 섬겨

(주님의교회), 회계 김흥구 목사(하늘샘교회)로 각각 정했다.

별도의 선거 없이 임원을 정하는 동부교협은 분기별 연합찬양 집회와 부활절연합예배, 성탄절 연합성가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주요 사안에 대한 회의를

회 유양진 목사를 결정했다. 총무는 오정택 목사(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로 정했다. 유양진 목사는 "한인이 적은 벤추라카운티 지역은 독립적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연합에 대한 필요성을 갖기가 어렵다"며 "그러나 교회나 교단을 초월한 협의체로서 연합의 물

로교회(담임 최재성 목사),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유양진 목사),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이상영 목사), 옥스나드한인교회(담임 김진국 목사)등 12개 한인교회가 있다.

◆ 인랜드지역교역자협의회

인랜드지역교역자협의회(회장 윤석길 목사)는 지난 6일(월) 송년모임을 갖고 내년도 신임 임원을 결정했다. 인랜드교협 회장에 마원철 목사(인랜드은누리교회)가 선출됐으며, 총무에 박해성 목사(남가주웨슬리교회)가, 서기에 손상현 목사(두란노교회)가, 회계에 강문수 목사(남가주웨슬리교회)가 선임됐다.

마원철 목사는 "연합을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들끼리 친해져야 한다"며 "인랜드교협은 서로 기도하며 섬기면서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인랜드교협은 19일(주일) 성탄절 연합예배 및 찬양제를 개최하며 2010년을 마무리했다.

(박상미 기자)



벤추라카운티교역자협의회 목회자와 사모. ©지재일 기자



인랜드지역교역자협의회. ©박상미 기자

연방 및 주정부 지원으로 LA ORT 대학에서

저소득층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자격자 한인 가정에 ESL과정을, 학비 전액 보조 및 다양한 직업교육 보조금 지급, 고수입 알찬 직업 추천

1. 비즈니스... (어카운팅,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2. 건강과 메디칼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약사 보조직, 의사 보조직)
3. 기술직 (컴퓨터 그래픽과 데스크탑 출판)
4. ESL (기초, 중급, 상급으로 나누어서 각 4-6등급의 반이 구성됨)
5. 유학생 1-20발행, 소셜 번호, 워킹퍼밋 도와드립니다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상담필수예약>

대표전화 (323)556-5386 Cell. (213)434-8128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유자격자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일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일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매트안에 전기선이 없는 신개념 온열매트 크로버 탄소매트

탄소 (Carbon) 함유량?

숯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미래형 소재로서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다른 온열매트에 비해 열 효율이 높아 절전형이다. 숯에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및 항균, 탈취, 항산화효과가 뛰어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웰빙(Well Being) 소재이다.

문의전화 Crover Inc 323-588-7277 WWW.CROVERGREEN.COM

QUEEN \$ 349 KING \$ 429

판매처

LA Sweet Dream (213)389-2828 김스전기 (213) 386-4882 정스 백화점 (213) 385-1111 ABC 플라자 (213) 386-1155 헬스코리아 (213)-487-4986 아비마켓 (323)-733-4986 캘러리아	가디나 Marukai (310)660-6300 토렌스 네이버스 (310)326-6666 세리토스 이불타운 (562)402-3737 H Mart 내 산호세 이불나라 (408)834-3004	가든그로브 이불타운 (714)530-6378 아리랑 마켓 옆 샌디에고 이불타운 (656)496-0766 샌디에고 시몬아켓 내 애난데일 Spring Water (571)228-2260 아틀란타 바이엔조이 (770)-232-7846	시카고 Hi-Mart (773)478-0007 타코마 팔도월드 (253)581-7800 신선백화점(253)582-2975 뉴욕 아시안북(718)886-8106
---	--	--	---

전기선이 없는 건강기능성 매트

매트안에 전기선이 없는 매트를 보셨습니까? 이제 그 과학이 기술로 실현 되었습니다. 매트안에 전기선을 걸어 내고 그대신 탄소 함유 원단이 들어가 있어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자파 테스트를 통과하여 전자파가 없음을 입증 하였습니다.

전자파 걱정은 이제 그만! 매트안에 전기선이 없어 더 안심!

꿈의소재 "탄소 함유"가 기존 전기선을 없애고, 품격있는 친환경 소재인 카본 탄소 함유 발열체를 통해 피부에 느끼는 온열효과가 높고 열이 공간으로 고르게 방사되는 복사열 가열방식이어서 안방, 침실에 따사로운 온기가 전해집니다.

원적외선 발산에 의한 복사열

카본 탄소 함유 발열체에서 방사되는 열은 전기선의 인위적인 열이 아닌 원적외선 복사열이 발산 되므로 선조들의 따뜻한 온돌방처럼 훈훈한 온기를 감속히느낄 수 있습니다. 원적외선 발산에 의한 숙면, 항균, 곰팡이 억제 및 냄새제거에 탁월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원적외선 방사율 (90%), 탈취기능 (84%), 항균기능 (99%)

세계 최초로 전기 제품중 유일하게 물세탁 (세탁기) 이 가능한 신제품

세계 최초 4개의 발명특허로 이루어낸 탁월한 내구성과 방수절연이 가능한 특수 4중 "안정코팅"으로 세탁 후 건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성 카페트이고, 물기있는 곳은 스스로 전원이 차단되므로 감전의 위험이 없고, 완전히 건조 후 전원이 전열되는 시스템의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깊은 숙면을 취하실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침기능

두 사람이 잠을 잘때 자기 체온에 맞는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난방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한쪽만 사용할 시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리 구조형으로 설계 되어 있습니다. 난방1, 난방2를 선택하여 누르시고 취침기능 버튼을 누르며 숙면 할수 있는 최적의 온도 35℃ (±2℃)를 유지시켜 줍니다. 난방 기능이 10시간 이상 지속될 시 자동으로 꺼집니다.

'Crover' 는 'Cross' 와 'Clover' 의 합성어로 십자가의 행복을 의미 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선교에 쓰여집니다.

'성탄의 기적과 기쁨을' 인랜드 성탄연합예배

연합예배 드리며, 교회별 찬양제도

인랜드지역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성탄의 기적과 기쁨을' 감사드렸다.

인랜드교역자협의회(회장 윤석길 목사)주최 성탄연합예배 및 찬양제가 지난 19일(주일) 저녁 인랜드교회(담임 최병수)에서 개최됐다.

1부 성탄예배는 최병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희철 목사(갯스윌연합교회)가 설교했다. 이희철 목사는(본문 눅1:34-38절) "성령의 능력으로 성탄의 기적과 기쁨을 맛보길 바란다"며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주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



인랜드지역 교회 연합성가. ©박삼미 기자

고 전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각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렸다.

찬양제에는 인랜드온누리교회(담임 마원철 목사), 갯스윌연합교회(담임 이희철 목사), 언약교

회(담임 류재덕 목사), 에덴선교회(담임 윤석길 목사), 한사랑교회(담임 박명룡 목사), 남가주 헬로우십교회(담임 박혜성 목사), 인랜드교회(담임 최병수 목사)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은 인랜드 지역에 개척한 손상헌 목사(두란노교회)와 한국의 교회로 부임해 가는 박명룡 목사, 인랜드교회 임원 등이 성도들 앞에서 인사했다.

〈박삼미 기자〉

기독교문화선교공동체 다정TV 25일 개국



오형천 목사 "감동적인 기독교 소식 전할 것"



오형천 목사

도콜방, '구인구직' 등의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 다정TV는 기독교 언론사와

선교단체 및 남가주 생명의 전화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 콘텐츠를 공유 및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생생한 감동을 전달할 계획이다. 오형천 목사는 "다정TV는 인터넷을 기본매체로 동영상 서비스(VOD)를 실시한다. 또한 향후 모바일, 이메일(e-Magazine) 등 멀티미디어를 선교적 도구로 사용할 계획이다.

인터넷 다정TV가 준비한 주요 메뉴는 '뉴스', 인터뷰와 간증을 담은 '살과 사람', 화제 이슈를 담은 '세상보기', 다정TV가 기획, 제작한 프로그램 및 기획 사업 등의 '다정 프로젝트' 이외 '사모방', '기

도콜방, '구인구직' 등의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 다정TV는 기독교 언론사와 선교단체 및 남가주 생명의 전화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 콘텐츠를 공유 및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생생한 감동을 전달할 계획이다. 오형천 목사는 "다정TV는 인터넷을 기본매체로 동영상 서비스(VOD)를 실시한다. 또한 향후 모바일, 이메일(e-Magazine) 등 멀티미디어를 선교적 도구로 사용할 계획이다. 인터넷 다정TV가 준비한 주요 메뉴는 '뉴스', 인터뷰와 간증을 담은 '살과 사람', 화제 이슈를 담은 '세상보기', 다정TV가 기획, 제작한 프로그램 및 기획 사업 등의 '다정 프로젝트' 이외 '사모방', '기

〈지재일 기자〉

영앤젤스어린이합창단 성탄 캐롤링

영앤젤스어린이합창단(단장 이희숙, 지휘 박세연)은 12월 23일 오전 10시 Angelus Plaza Retirement Home, 11시 Shriners Hospitals for Children Los Angeles, 12시 St Vincent Medical Center에서 병원 환자들을 위한 성탄절 기념 캐롤링을 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나섬영락교회에서 정기연습을 하며 1학년~12학년까지 노래를 좋아하는 한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문의) 213-281-1200

〈지재일 기자〉



그린파크 양로병원 노인들이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찬송가 204장을 암송으로 찬양했다.

장애우사랑교회(담임 오진형 목사)는 지난 18일, 19일 양일간 그린파크양로병원



양로병원 노인들을 섬기는 클라우디아 최(Claudia Choi), 가브리엘 오(Gabrielle Oh), 제니퍼 한(Jennifer Han) 고등학생들.

연대회를 위해서는 필그림 앙상블이 특별 연주를 선사했다. 가브리엘 오 학생은 "아버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우사랑교회 주최 찬송가 경연대회는 나섬동산교회(한기형 목사), M.G.M, 마동환 변호사그룹, 울스타전화, 백보한의원, 중앙양로병원, Ultra Lighting이 후원하고, 기독일보가 협찬했다. 장애우사랑교회는 함께 섬길 동역자와 후원자를 찾고 있다. 문의) 213-705-0404

〈지재일 기자〉

'어려운 이웃들 위한 아름다운 섬김'

과 중앙양로병원에서 구주탄생 찬송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경연대회는 가브리엘 오(Gabrielle Oh), 클라우디아 최(Claudia Choi), 제니퍼 한(Jennifer Han) 고등학생들이

연했다. 양로병원 노인들은 찬송가 경연대회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찬송가 204장을 암송해 치매도 예방하고, 일상의 무료함을 찬양으로 달랬다. 이날 경

의 양로병원 사역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찬송가 경연대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들 과외 교육, 홈리스 재활 사업 등을 섬기고 있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 그들

금 10k, 14k, 18k, 24k
최고가에 매입합니다

금매지 213-908-0854
충장한영 3960 Wilshire Blvd. #406 (월서+월턴)

메디케어 수혜자 들게 알립니다!!

CA LIC #0G6788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과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해외여행사 응급비용지원
- 헬스클럽 멤버십 • 교통편 제공 등

무료상담 : 213-503-6897 (폴선)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패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동부사인&트로피

간판부 Tel :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 (626) 810-2621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축 성탄

제29대 미주장로회 신학대학(원) 동문회

회장: 양기호 목사 (동문회 이사회)
부회장: 고영준 목사
서기: 고희열 목사 부서기: 백선용 목사
회계: 이미란 목사 부회계: 양옥석 장로
감사: 윤건창 목사 박충기 목사 최명환 목사

이사장: 강신권 목사
부이사장: 전영훈 목사
서기: 김종용 목사 회계: 차경미
감사: 박충기 목사 임흥빈 목사

〈역대회장〉 1대 탁기천 2대 이진구 3대 고영준
4대 임흥순 5대 최치호 6대 박충길
7대 오병익 8대 민준기 9대 박명석
10대 허 최태식 11대 · 12대 최지영
13대 김종원 14대 박충기 15대 백정수
16대 손태환 17대 김재우 18대 이병욱
19대 서정일 20대 현희덕 21대 양기호
22대 이상훈 23대 홍성학 24대 김동원
25대 윤건창 26대 장진기 27대 김종용
28대 전영훈

미주 장신대 동문회

송년의 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정리하며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힘찬 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0년12월27일 월요일 오후6시
◆장소: 세계성경장로교회

리폼드대학교 '칼빈주의' 아닌 '칼빈 신앙' 가르친다

칼빈의 신학사상에 기초, 개혁신학의 정통을 이어가는 리폼드대학교 신학대학원(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총장 조주호 목사)은 칼빈의 신학사상과 칼빈의 신앙관을 가르치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LA한인타운 아담스가(1342 W. Adams Blvd)로 이사하면서 학교를 재정비하고 있는 리폼드대학교는 지난 1976년도에 설립된 학교로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합동총회 인준 신학교이다. 설립 후 교단 신학교로만 운영돼 오던 리폼드대학교는 세속화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안타까워하며, 진정한 보수신학인 성경중심의 신앙관과 예배관, 개혁주의 신앙을 가르쳐 진정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고자 학교의 문을 넓히고 문턱을 낮추는 중이다.

총장 조주호 목사는 "보수신학의 기초는 칼빈의 신학사상과 신앙관"이라며 "칼빈의 신학사상



리폼드대학교 총장 조주호 목사. ©지재일 기자

총장 조주호 목사 "칼빈 신학사상 기초 개혁신학 전통 이어가"

과 신앙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말했다. "바른 예배관과 성경중심의 신앙관이 교회개혁"이라고 지적한 조주호 목사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는, 바른 신학과 신앙의 기초위에 교회관을 확립해가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관을 지켜

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폼드대학교는 바른 신학과 성경중심 신앙을 겸비한 지도자의 인격을 갖추고,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시대의 사명자로 양육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교수진 구성

을 비롯한 권위있는 미국 신학대학교와의 교류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리폼드대학교는 미주지역의 한인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에도 나서고 있다. 다른 야닌 선교에 활용할 수 있는 건축기술, 교회실용음악, 컴퓨터 활용, 언어 등의 강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교 측은 배우고 싶어도 비용이 비싸거나 기회가 적은 작은교회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 27일(목)~29일(토)까지 남가주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 및 축복성회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수원시은소교회 김성길 목사와 에브리데이교회 최홍주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주소: 1342 W. Adams Bl. LA, CA90007-1635(리폼드대학교) 문의: 818) 337-8280(교무처) e-mail: spr113@hotmail.com <박상미 기자>

어린이를 위한 CII 할리데이 축제 개최



약4천여 명의 어린이와 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를 위한 할리데이 축제가 Children's Institute, Inc.(이하 CII) 토렌스 캠퍼스에서 지난 11일 열렸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축제의 가장 인기 있는 행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장난감 선물 증정이다. 장난감 회사인 마텔(Mattel)을 비롯한 30여개 회사 및 개인 자선가의 도움으로 준비된 장난감들은 연례대

별로 나눠져서 원하는 장난감을 어린이가 직접 고르는 재미를 더 하였다. 특히 CII 토렌스 캠퍼스 야외에서 펼쳐진 말타기, 바디 페인팅, 인형극,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사진찍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는 연말연시를 보내며 소외될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가득한 웃음과 따뜻함을 전했다. (자세한 행사 정보는 www.childrensinstitute.org) <지재일 기자>

◎ 웨퍼드 음대 학생 리사이틀 성황



Everything I Desire 합창 연주 장면

웨퍼드대학교 음악대학 가을 학기 학생들의 리사이틀이 지난 16일 음대 3층 공연실에서 열렸

다. 보컬, 기타, 드럼, 색소폰, 키보드 등 다양한 음악 전공자들이 지난 학기 같고달듯한 기량을 맘껏 뽐

내 관중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학생들은 'City Called Heaven', 'Use Me', 'Lord, Hallelujah' 등

성가곡과 Closer 등 일반 음악도 다수 선보였다. 웨퍼드대학교 합창단을 지휘한 이정욱 교수는 "클래식 전공이 아닌 컨템퍼러리 보컬을 전공한 학생들이라 합창 음악에 익숙지 않았지만, 연습하면서 합창 음악에 관심을 갖고 리사이틀도 잘 연주했다"고 말했다. 드럼 전공 추지훈 학생은 "미국 유학 후 첫 공연이라 많이 긴장했었다"며 "공연 중 실수해도 격려해주고, 서로 격려해줘서 큰 힘이 됐다"고 연주 소감을 밝혔다. <지재일 기자>

'예수님 탄생하심을 축하해요~♪'

코너스톤교회 크리스마스 콘서트 개최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는 19일 오후6시 30분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했다. 크리스마스 찬양을 부른 성가대와 어린이들의 찬양, 대학부의 스킷 드라마, 이종용 목사의 설교 시간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불신자 및 교회 인근 한인과 미국인 등 다민족 이웃들을 초청했다. <지재일 기자>

이종용 목사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며 "어린이들부터 어른들이 함께 복음으로 하나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기회, 또 불신자들을 초청해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너스톤교회는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예배를 오전11시에 드린 후, 31일 오후11시 30분에 송구영신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지재일 기자>



어린이들이 함께 Happy Birthday Jesus를 찬양했다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푸엔티 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경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CPC 세리토스장로교회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김한요 / Sr. Pastor Bryan H. Kim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구원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새해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예배 1부: 오전 07:30 2부: 오전 09:00
 3부: 오전 10:45 (교회학교)
 4부: 오후 12:40 (교회학교)
 EM: 오전 10:45

주소: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전화: (562)860-5451 팩스: (562)865-7302
 웹사이트 www.ilovecpc.org

벤엘장로교회
 담 임: 변영익
 857 S. La Brea Ave, Los Angeles, CA90036
 Tel. (323) 937-1733 Fax. (323) 931-2836

성탄을 축하합니다!

[새벽강단 24] 유니온교회 새벽예배

부활의 능력과 권세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일보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예배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유니온교회 담임 문병용 목사는 부임한지 5개월을 맞이하고 있다. 문 목사는 '바쁜 이민자들의 삶에서 새벽기도는 힘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부임한 후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체험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체험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13월에 나오는 것처럼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을 자주 생각하지 말고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잊어야 할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수치심을 조장하는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야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

유니온교회 문병용 목사 "과거 잊고, 부르심의 상 위해 달려가라"

시작한 특별새벽기도회로부터 성도들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또한 새벽기도를 통해 일어난 응답과 역사가 성도들의 간증이 되기 시작했고, 새벽기도만 참석하다가 교회에 등록하는 이들도 생겼다. 문병용 목사는 2010년을 마무리하면서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오직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라"며 "2011년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성도들과 유니온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다.

〈빌 3장 10절~16절〉



문병용 목사

해 이 루려는 엄청난 비전도 짝조차 시작한다. 그 일이 죄라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또한 죄가 아닌데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이 있습니까? 생각을 물리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잊어야 할 일은 '억울함'입니다. 누명을 쓰거나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면 억울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평생 잊지 못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상한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감정은 원한을 만들어 우리의 영혼과 정서를 시들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억울함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도 자신도 보면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운함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서운하고 섭섭해집니다.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운함은 앞으로 전진 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붙들고 있는 과거는 무엇입니까? 찾아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앞에 말한 과거의 일들에 집착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살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루려는 엄청난 비전도 짝조차 시작한다. 그 일이 죄라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또한 죄가 아닌데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이 있습니까? 생각을 물리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3~14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뜻대, 부르심의 상, 영생의 상급을 위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2010년이 열흘정도 남았습니다. 잊어야 할 것들, 끊어내야 할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잊어버리기 위해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2011년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바랍니다.

〈박상미 기자〉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 북부지역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평범한 성도로 교회를 섬기다 주님을 만난 후 영혼 구원에 힘쓰고 부르심을 좇아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종호 선교사를 만났다. 부산 수영로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베트남에서 7년간 사역한 이 선교사는 지난 11월 LA에 들어와 컴미션 센터에 머물며 미주지역 베트남 선교 동역자들을 찾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라 국민의 종교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베트남에서는 직접적인 복음전파가 어

성도들의 재정을 위해 '가족은행' 사역도 진행하고 있다. 생명력과 번식력이 좋은 염소를 키워 가난한 집안 살림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염소 10마리를 사서 믿는 성도들의 가정과 안 믿는 가정에 골고루 나누어 줬다. "어떤 집은 염소 한 마리로 시작된 센터에 머물며 미주지역 베트남 선교 동역자들을 찾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라 국민의 종교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베트남에서는 직접적인 복음전파가 어

는혜조. 인간의 생각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7년간의 사역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에 든든한 현지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후기사역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나오기 전까지 사용했던 모든 가구와 집기, 오토바이는 현지 교회들에 모두 나누어 주었다. "7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만 또한 숱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사역하는 동안 한국에 남겨졌던 두 아들이 돈이 없어서 굶어야 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한 갖가지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그는 앞으로도 선교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베트남 북부지역의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주님께서 핍박받는 소수민족을 위해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북쪽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아내 김미영 선교사와 베트남 중남부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해온 이 선교사는, 7년 동안 8개 교회를 개척했으며 처소교회를 유지하다 부흥한 교회 중 2곳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재정이 부족해 중단된 상태다. 또한 가난한 현지 신학생 10여명을 돌보며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한 달에 60~70불의 돈만 있어도 마음 놓고 신학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여러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후원은 절실하다. 비록 LA 지역에 아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실 동역자들을 찾아 믿음으로 왔다. 이종호 선교사는 내년 1월까지 미국 LA에 머물 예정이며 415-713-0174로 연락하면 된다. 이메일: ljho1009@hanmail.net 후원계좌: 076-390701-02-101(우리은행, 예금주 이종호)

〈박상미 기자〉

직접적인 복음전파 어려운 나라, 의료활동 가족은행 사역으로 선교



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선교지에 들어가기 전 중의 침구류와 자격증을 취득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치유사역부터 시작했다. "무료로 치료를 해주니까 소문도 나고 사람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지역 의료인사들을 치료하는 기회도 생겼는데 그들로부터 선교활동에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길을 열어 주시더군요." 이 선교사는 가난한

의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할 훌륭한 접촉점이 된 것입니다."

직접적인 선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선교사의 의료활동이나 가족은행 사역으로 어려웠던 마을은 점점 활기차게 되고 더러웠던 마을이 깨끗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공안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선교활동을 눈감아 주기도 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가정교회를 공식교회로 인정해주는 일도 일어났다. "모두가 하나님의

결혼과 영주권 신청 합쳐서 \$700

▶ **싼요금 이혼 \$250부터**

- 속성 결혼신고 \$130
- 가족초청\$190
- 영주권 수속 \$600
- 이름변경\$290
- 시민권 수속 \$100
- 공중 \$10

20년을 길은 정소에서 영주권 3000건 이혼 2500건 이상을 완벽하게 처리한 사무실임

각종 이민 수속, 각종 소송서류, 면역, 전과기록 정리, 주정부 이민펀드 #CF3512 LA에서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

가고파 김경일 법무사 (Lic#0504)
T.(213)-252-0000
3540 Wilshire Bl.#318, LA, CA 90010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 2011년 1월 3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쁜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턴)

베델한인교회 목회자 청빙

베델한인교회 청년교회 예산채플에서 함께 동역할 Full Time 목회자(부목사)를 찾습니다. 청년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을 초청합니다.

첨부서류 이력서 1통(가족사진 1장) / 최근 설교 영상 CD

자 격 영주권자 이상

마감시한 2010년 12월 31일

문 의 양성필 목사 949-854-4010 (yangpastor@gmail.com)
장영락 목사 949-922-8930 (wip7@hotmail.com)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Fax : 949-854-4018

NIV 성경, 중성 대명사 사용으로 여전한 논란

복음주의 교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어 성경인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성경이 남성 명사와 관련해 이뤄진 최근의 수정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번에 가해진 수정은 지난 2005년 나온 TNIV(Today's International Version) 성경이 성포용적(gender-inclusive) 단어로 논란을 불러 일으킨 가운데 비판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뤄진 것이다.

TNIV 성경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왔던 미국 성경적남성성과 여성성협회의(CBMW)측에 따르면 TNIV 성경은 총 3,600 군데에서 특정 인물이 아닌 일반적 사람을 지칭하는 데 쓰인 he, him이나 man 등을 they, them과

human beings 등과 같은 중성적 단어로 바꿔서 썼다.

CBMW는 man을 human beings로 바꾼 것과 같이 일부 대체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된 성경 원문 상의 의미에 보다 가까운 번역이 된 경우도 있지만, 남성 대명사를 피하기 위한 중성적 복수 대명사의 사용은 해석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내년 3월 출판 예정인 NIV 개정판에 앞서서 출판



존더반사와 바이블리카 사이트에 먼저 공개된 수정 사항들은 TNIV 성경에서 모호성이 지적됐던 중성적 복수 대명사들을 다시 남성 단수 대명사들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CBMW는 이러한 재수정이 전체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일부에 한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완벽한 개선이 아니라고 여전히 비판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1984년 판 NIV 성경

이나 TNIV 성경을 따르지 않고 둘 사이에서 절충안을 취해 성이 구체적이지 않은 일부 명사들을 사용한 점(예: that person) 등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에 이뤄진 수정에 대해서 환영하는 쪽도 없지 않다. 2005년 당시 샌디에고베델신학교 마크 스트라우스 박사, 복음주의 작가인 필립 안시 등을 포함한 11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TNIV 성경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달라스신학교 대럴 보크 박사는 “성경 번역에 있어 성에 보다 중심스러운 접근이 결코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오히려 이번 번역은 많은 부분에서 명확성을 개선시킨 점이 높히 평가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손현정 기자)

이라크 정부, 성탄절 앞두고 교회 보안 강화 조치



현지 교계, “예배만은 드릴 수 있길 바란다” 밝혀

이라크 정부가 성탄절을 앞두고 기독교 교회들에 방어벽을 설치하고 있다고 현지 가톨릭 언론이 전했다.

이라크에서는 지난 10월 31일 구원의성모마리아성당에서 발생한 인질극으로 58명이 숨지고 75명이 다친 것을 비롯, 이후에도 잇따른 교회나 기독교인 공격으로 현재까지 12명이 더 숨진 바 있다.

이처럼 기독교인 안전이 어느 때보다 취약한 상황에서 곧 다가오는 성탄절은 기독교인들을 한 데 모으는 점에서 더욱 테러에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이라크 중앙 정부는 최근 대기독교 공격이 횡행하고 있는 바그다드와 모술을 중심으로 기독교 교회들 주위에 약 3m 높이의 방어벽을 쌓는 조치를 취하기에 나섰다

또한 교회 출입은 경찰의 통제 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에서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을 맞아 교회는 물론 인근 공원 등에서의 파티 등을 열며 이 날을 기념해 왔으나 올해는 안전을 위해 이러한 외부 행사들을 취소하고 있다고 바사르와르다 신부는 전했다.

“사람들의 슬픔이 느껴진다. 모든 사람들이 갖는 의문은 ‘이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이며 불확실성에 모두들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성탄절 예배만큼은 반드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가 최근 잇따른 반기독교 테러를 피하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이주가 줄을 잇고 있으며, 그 수가 수천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독교인들은 이라크 중부 지역을 떠나 주로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시리아나 요르단, 레바논 등과 같은 인근 국가들로 망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스웨덴 등과 같은 서구 국가들에 망명을 요청하는 기독교인들의 수도 늘고 있다고 UNHCR은 밝혔다.

(손현정 기자)

인도의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월드웨어는 인도의 어린이날인 11월 14일을 맞아 인도 벵갈루르에 위치한 저소득층 학생 170명과 교사들에게 특별한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이번 선물은 어린이날 갖고 싶은 선물을 조사했던 질문에 아이들 대부분이 ‘하루를 굶지 않고 배불리 한 끼를 먹어보는 것’이라고 답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월드웨어는 세미나 교 결연 아동들을 중심으로 도시락을 싸 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두 달간 무료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날 벵갈루르 인근 어린이집 3곳에 각각 쌀 50kg와 달걀 5kg, 기름 2L씩을 전달했다.

이날 점심으로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 라이스(유지방을 듬뿍 넣은 채소밥)와 계란 커리, 바나나 등이 제공됐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인구의 약 1/7에 해당하는 10억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당하고 있으며, 이들 중 65% 정도가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에 집중돼 있다고 한다. 월드웨어는 지난 2007년부터 필리핀 다바오 지역을 시작으로 인도, 캄보디아 등에서 무료급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대웅 기자>

릭 워렌, 종교계 가장 영향력있는 트위터 유저



릭 워렌 목사가 종교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트위터 유저 중 한 명으로 뽑혔다. 워렌 목사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 최신포가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유명 트위터 유저 20인 가운데 달라이 라마와 함께 종교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클라우트(klout) 점수에 따라 선정된 20명의 유명 트위터 유저들은 대부분이 저스틴 비버, 레이디 가가, 조

조너스, 카니예 웨스트, 코넬 오브라이언 등 북미권 연예계 인사들이었다. 이외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브라질의 유명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 등 정치, 문화계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1위인 캐나다 출신 팝 아이돌 저스틴 비버가 팔로워 수 630만 명으로 총점 100점을 평가 받은 가운데, 워렌 목사는 팔로워 수 20만9천 명으로 총점 86.7점을 평가 받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다음인 20위에 올랐다.

클라우트 프로파일은 “워렌 목사는 매우 광범위하고도 신뢰도가 강한 높은 질적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그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워렌 목사는 2009년부터 트위터를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목적이 이끄는 네트워크(Purpose-driven Network) 내의 지도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트위터 사용 계획이었으나 점차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의 장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워렌 목사는 현재 개인적인 일상뿐 아니라, 목상하고 있는 성경 구절, 신앙적 도전들과 조언 등을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는 “기술은 절대 그 자체에서 멈추지 않으며 메시지가 매개체를 여전히 능가한다”며 “(트위터와 같은) 새로운 통로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찾아 왔던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한 수단들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밝혔다.

(손현정 기자)

오토뱅크 Auto Bank

1만달러 이하 중고차만 사고 팝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차를 찾아드립니다. 충분한 워런타기간 / 교정시 지정 정비소 통한 수리 (30%AOX)



John Ko 213-908-3308 http://joencha.com

80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로스앤젤레스 교역자 협의회 임원 명단

The Los Angeles Council of Korean Churches

고문 - 박영창, 임동선, 조천일, 류당열

자문 - 구기조, 김사무엘, 함명철, 홍영환, 반중근, 김영모, 원희철, 성충정, 김재연, 황천영, 김인식, 이재영, 김상덕, 송정명, 석창균

분과 위원회: (상설기구) 이단대책분과: 한선희 법률 분과: 김충립

예배분과	진유철	장로분과	이신모	간병인분과	자넷최	천교분과	서사라
교육분과	김희창	부정부패추방	김문철	원로분과	유응열	여성분과	서인애
선교사분과	이재환	사회단체교류	김원선	언론분과	드보라김	의료분과(한)	박영권
여교역자분과	강명숙	선교분과	이원갑	교회갱신분과	방동섭	노숙자분과	그로리아김
성경번역분과	이원열	음악분과	데이빗	무로병원 설립	정순규	교정분과	정영득
성경정독분과	김정득	평신도선교분과	임해빈	호스피스분과	이정우	권사분과	박춘자
홍보분과	남철우	신학분과	김인수	개혁교회분과	이중용	한미천선교류	노인국
청소년분과	박용수	체육분과	장병철	봉사분과	채동선	부흥사분과	박후식
의료분과(양)	강신원	복지분과	박성근	통역분과	조후연	윤리실천분과	유영석
상담분과	다윗박	찬양물동분과	구옥현	영성분과	홍윤표		
장애우분과	공혜미야				유기종		



회장: 표세홍 목사

부회장: 권오달, 박효우, 방동섭, 이성주, 백형권
협력 부회장: 임테레사, 임형주, 김창겸, 이주호, 백형로
총무: 백성식
부총무: 양병삼, 김원락, 마원철, 이상억
실행총무: 김영배
서기: 서요한 / 회록서기: 전석호
회계: 이병
(분과 위원회)
(상설기구) 이단대책분과: 한선희 법률 분과: 김충립

로스앤젤레스 교역자협의회

T. 323-325-4587 www.ckcla_onmam.com
17400Vanowen St Van Nuys, CA 91406

세상에 뺏긴 아이들,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다

인터뷰

'4-14윈도우' 세대 향한 갈망, 이은무 선교사

‘출석 성도수가 몇 명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자. 50명이든 100명이든 그 안에는 대부분 어른들만 포함될 것이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자. ‘어린이들은 몇 명입니까?’

‘교회의 미래’라 불리는 어린이들. 하지만 5월 어린이 주일에 한 번, 12월 성탄 주일 연극이나 공연에서 또 한번, 그리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백 투 스쿨’ 기도회 등이 열리는 8월 말에 다시 한번, 많아야 일년에 3~4번 어린이들이 교회 예배와 행사의 주인공이 될 뿐이다.

주일학교는 소비대상일 뿐이라 여겨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대다수의 교회들은 ‘교회의 미래’에 투자할 생각도 없이 그물에 들어온 물고기 조차 놓치고 있다. 교회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솔직히 돌아보자. 몇 년만 지나면 청소년과 청년이 될 어린이들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큰 관심과 후원을 쏟았는가?

애틀랜타에서 최근 시작된 ‘4-14 윈도우(Window) 운동’의 기수 이은무 선교사를 만났다. 그는 본인 역시 30년간 선교를 했지만 어린이 선교에 큰 관심을

두지 못했다면서, 목회자들부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어린이 선교 우습게 봤지만...교회에 어린이가 없다!
언젠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장년 성도 500명 이상의 교회에 50명도 되지 않던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숫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



았다는 이은무 선교사는 한국 꽃동산교회(담임 김종준 목사)를 예로 들었다. 어린이들을 ‘꽃’으로 여기고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실만한 ‘동산’이 되겠다는 취지로 탄생한 꽃동산교회. 1988년 어른 40명, 어린이 40명으로 시작한 이 교회는 현재 1만 8천명 제적성도에 1만 명 성인성도, 어

린이들만 5천명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가 됐다. 처음부터 어린이 사역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았는데, 어린이들이 늘어나면서 부모님이 같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중에 많은 비율이 불신자였지만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양육으로 세례를 받았다.

“어린이가 교회에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성경에 가나안을 정복한 이들은 1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끈 2세대입니다. 2세대가 준비 안되면 이미 허락하신 땅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전에 어린이 선교를 간다고 하면 우습게 알았어요. 어른들을 전도하기 힘들니까 어린이 대상으로 한다는 생각도 했죠. 제가

선교사 1세대인데, 목회자나 선교사, 교회나 신학교에서 보통 가진 생각이 그랬습니다. 어린이들은 리소스(자원)이 없다고 치부해버리죠. 이건 큰 잘못입니다.”

◎ 세상에 뺏긴 아이들,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은무 선교사가 젊은 시절만 해도 부모는 안 믿어도 자녀들은 교회에 보냈다고 한다. 그렇게 교회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돼 현재 한국교회의 기반이 된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부모는 교회에 오는데 자녀들은 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모의 열정과 관심이 신앙보다 교육에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아이들이 밤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순서가 있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도 결국엔 무너져요. 신앙과 인성이 어릴 때 닦이지 않으면 좋은 학벌, 외모, 가정, 직장이 있어도 흔들립니다. 또 아이들이 밤새 공부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면 그걸 깨워서 교회에 데리고 올까요? 아니에요. 더 자라고 놔두죠.”

어린이 신학에 대한 새로운



이은무 선교사

개념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 선교사는 인생에서 감수성이 가장 풍부하고 선교의 효과가 큰 ‘4-14윈도우’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심령에 신앙을 심지 않으면 세상에 빼앗기게 된다 경고했다.

‘4-14 윈도우’는 김남수 목사(뉴욕프라미스교회)가 주장한 연령적이고 세대적인 선교의 개념으로 만 4세부터 14세 사이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운동을 일컫는다. 이은무 선교사가 있어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도 결국엔 무너져요. 신앙과 인성이 어릴 때 닦이지 않으면 좋은 학벌, 외모, 가정, 직장이 있어도 흔들립니다. 또 아이들이 밤새 공부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면 그걸 깨워서 교회에 데리고 올까요? 아니에요. 더 자라고 놔두죠.”

◎ 어린이 선교의 필요성 인식 시키는 데 힘쓸 것

‘4-14 윈도우’ 애틀랜타운동본

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보다 ‘어린이 선교의 필요성 인식’이다.

장기적으로는 2012년 김남수 목사, 루이스 부쉬 목사, 어린이 교육학자 등을 초청한 ‘4-14 윈도우’ 애틀랜타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며, 당장 내년 1월부터 매주 교사강습회가 실시된다. 4주 과정의 교사강습회는 ‘Knowing+Being+Doing’을 주제로 ‘성경을 깨닫고, 인격이 변화되며, 사명을 갖고 봉사하는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주일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된다. 특별히, 안디옥교회 근처 공립초등학교 교장이 흔쾌히 어린이 교육 부분에 관한 강연을 수락하기도 했다. 처음엔 안디옥교회 내부에서 시작되지만 점차 문을 열고 요청이 있는 교회와 교육기관에서 강습회를 개최한다.

“어린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부터 아이들이 지나가면 한번 더 돌아보게 되고, 성경의 말씀도 새롭게 보입니다. 성경에 4가지 마음 운동을 일컫는다. 이은무 선교사는 ‘4-14 윈도우’ 애틀랜타운동본부의 디렉터를 맡고 있으며, 대표로는 안디옥교회 허연행 목사다. 20일부터 26일까지 안디옥교회에서 개최되는 뮤지컬 ‘히즈 라이프’ 역시 ‘4-14 윈도우’ 운동의 일환으로 15세 이하 관객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

“어린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부터 아이들이 지나가면 한번 더 돌아보게 되고, 성경의 말씀도 새롭게 보입니다. 성경에 4가지 마음 운동을 일컫는다. 이은무 선교사는 ‘4-14 윈도우’ 애틀랜타운동본

고독, 상실... 애틀랜타 한인들 우울증 어느 정도?

최근 10대 한인 여학생의 자살 사건의 원인이 우울증으로 밝혀지면서, 한인사회도 더 이상은 우울증을 간과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일고 있다.

우울증, 어떻게 오는 가?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심리적, 사회적 원인이 거론돼 왔다. 먼저, 유전적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이 있었던 경우는 정상인보다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2~3배 더 높다. 심리적 원인으로는 다음의 특정 성격 소유자가 지목되고 있다. 마지막, 사회적 원인으로는 도시화,

핵가족화, 개인주의, 업무 중심주의 등 현대의 복잡하고 스트레스 높은 사회 환경이 원인이 되고 있다.

애틀랜타 한인사회, 가정불화가 주요인

한인회 산하 패밀리센터(소장 이은희) 가정상담을 맡고 있는 정소영 박사는 “활발하게 살던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생활 영역이 한정되면서 좌절과 우울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인이 되어 미국에 온 경우, 언어의 제약으로 사회생활의 한계를 경험하고, 한국에서는 겪어 보지 못한 문화 갈등, 이로 인

한 부부나 자녀간의 관계의 원만한 소통 부재가 한인 사회 우울증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 드러내기 시작하면 절반은 치유된 것

우울증 상담을 하고 있는 목회자 및 상담가들은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울타리를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막상 누군가에게 문제를 드러내 말하기 시작하면 문제의

절반이 풀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울증이 극에 달하게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자신 혼자 뿐이라는 처절한 고독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슬픔을 함께 나눠 주고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게 해주는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낯두리를 들어주는 식이 아닌 전문적 상담이 절실하다는 게 상담가들의 의견이었다.

한인 교회, 친밀한 교제와 소통의 장 제공해야

19세기 말 처음으로 자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한 프랑스의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기독교인들의 자살률이 천주교인이나 유대교인보다 크게 앞서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개신교회가 천주교회나 유대교 모

임에 비해 집단적 의례나 공동체 영성 보다 개인적 신앙형태를 강조하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지적했다.

한인 교회들은 셀그룹 등을 통해 삶을 나누고 깊이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 어머니 기도 모임의 유성희 전도사는 “참여하는 여성 중 20~30%는 우울증을 가볍 앓았던 경험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을 나누고, 함께 어려움을 공유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치유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먼저는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일회성에 그치는 모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자연스런 치유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한인 교회, 친밀한 교제와 소통의 장 제공해야

19세기 말 처음으로 자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한 프랑스의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기독교인들의 자살률이 천주교인이나 유대교인보다 크게 앞서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개신교회가 천주교회나 유대교 모

컴퓨터 무료 견적, 수리후 3개월 안에 문제 생기면 무료 서비스!!

사이버텍 컴퓨터
www.computer-ctc.com

PC & MAC on Sale! (Compare Price)
- 한/영 키보드 \$1 세일 (12월 31일 까지)
- Ko/En Keyboard \$1 SALE! (sale ends Dec. 31)

컴퓨터 교육! 인터넷, 오피스, 사진방 | 월수금토 / 오전10시-12시

T. 714-590-9504 아리랑마켓 몰 한국일보 2층 (9562 Garden Grove Blvd #Q, Garden Grove, CA92844)

동부지역교역자협의회

회 장: 하나로커뮤니티교회 강일용 목사 / 부회장: 아름다운교회 고승희 목사
총 무: 엠마오교회 김민섭 목사 / 서 기: 하늘샘교회 김형구 목사

글로벌선교회 김지성 목사	디베라장로교회 황인식 목사	유니온교회 문병용 목사
나성남교회 전병주 목사	로고교회 김명선 목사	은성교회 황명길 목사
갈보리복음교회 이달은 목사	미주새벽교회 이정석 목사	주님의교회 김병학 목사
뉴하트교회 권홍량/박문환 목사	반석위에세운교회 김성철 목사	중앙침례교회 장철훈 목사
기쁨장로교회 이송재 목사	브리자교회 장세정 목사	축복교회 김인경 목사
나성교회 정동석 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고태형 목사	크로스로드교회 전길성 목사
동부가나안교회 백정수 목사	선한침지교회 송병주 목사	한빛성결교회 차광일 목사
동부사랑교회 박승규 목사	성화사랑의침례교회 이종철 목사	호인교회 이정석 목사
동부평강교회 김삼도 목사	예수사랑은혜교회 허만진 목사	호산나교회 라세영 목사

성령을 축하합니다!

샌퍼난도밸리한인교회 교역자협의회

(회장 김원탁 목사, 부회장 장동일 목사)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합니다!

2011년 1월 11일(화) 신년하례회 및 임원 이취임식
오전10시 30분 / ☎문의) 213-923-0424

목사 장로 갈등 겪으며 건강한 교회 향한 도약

▶ [나의 목회 이야기] 시카고 하나교회 이영래 목사

목회란 무엇일까? 목회자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정의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그 목회자의 목회철학이라고 한다면 모든 목회자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목회철학에 따라 목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목회철학에 근거해 때와 시기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과 관심, 초점을 갖고 목양에 임한다. 이 인터뷰는 추상적인 목회철학을 묻는 인터뷰가 아니다. 시카고 북음화를 위해 오늘도 선한 싸움 중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 목회철학대로 목회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자 하는 인터뷰다.

첫번째 인터뷰는 시카고 하나교회 이영래 목사다. 이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Th.B.)와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대만의 타이난신학교에 C.W.M 교환학생 자격으로 선교학을 공부했다. 이후 맥코믹신학교로 유학와 성서신학으로 M.A.T.S. 학위를 마친 후, 현재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 중에 있다. 한국 영락교회 전임전도사, 연신교회 부목사를 거쳐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김 후, 미국장로교(PCUSA) 시카고노회 소속의 하나교회에 청빙 받아 5년째 목회해 오고 있다.

이목사의 이야기는 정확히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부 장로와의 갈등으로 시작된 분쟁이 예배 중 소란행위로 발전되었고 이목사가 당회에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표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노회가 개입하게 되었고, 노회는 이목사의 사표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킨 후 행정전권위원회를 파송하게 되었다.

행정전권위원회는 이목사의 사표를 무효 처리한 후, 분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 장로제신임 제도에 대해 이목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성도들에게 미국장로교의 시스템과 교단 규례서(Book of order)를 교육하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5명의 장로

와 8명의 안수집사(권사)를 선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회의 화합을 위한 전권위원회의 활동기간 중에 몇 명의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무질서한 행동이 있었고, 전권위원회는 12월 13일자 공문을 통해 그들의 행동이 징계를 받을 만한 행동임을 명시한 후 그 징계권을 2011년 1월 9일 임직식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당회에 위임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교회 분쟁의 결론을 맺었다.

이영래 목사는 지난 1년의 갈등을 통해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고백을 했다. “지난 1년은 인간의 무능력함과 죄성,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과 그분의 통치하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은 시기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더 들어 본다.

-갈등이 없을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갈등을 조정하며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원만하게 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저는 모든 교회의 문제는 일단 담임목사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었더라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갈등은 일어났고, 우리는 충분히 고통을 받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비록 갈등을 통해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본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로서의 인테그리티(결정성, integrity)를 지켰고, 덤으로 건강한 장로교 시스템을 이식받는데 성공했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정면돌파를 강행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건강성에 대한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장로제신임 문제였는데, 제가 장로님들에게 제신임에 대해 교육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드렸을 때, 더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득도 해 보았지만 이미 반대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분들에게는 아무 효

과가 없었습니다. 제게는 장로제신임 투표가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기 때문에 목회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도 정면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재신임 투표를 강행하기로 했고, 여기에 반발한 장로님들 의해 사임 요구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왜 장로님들이 재신임 투표에 반대했을까요?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목사에게 질 수 없다는 오기가 발동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평화롭게 성장하고 있었고 성도들 대부분은 저와 장로님들의 갈등을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반수만 넘으면 되는 투표에서 장로님들이 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장로님들이 “교회의 평화를 위해 목사의 기를 꺾어놔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의 경우에도 장로라는 직분에 대한 몰이해와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권한 행사가 교회의 건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장로라는 자리는 섬김을 위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 앉고 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자리가 주는 힘의 매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목사를 길들이려 하고, 자기편에 서는 사람들이 계만 직분의 기회를 주는 정치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로들에 의한 대의정치가 소수의 기득권자를 위한 귀족정치로 변질되게 됩니다. 장로교 정치 원리는 회중이 뽑은 소수의 장로가 다수의 회중을 대표하여 교회를 섬기고 일정 기간을 섬김 후에 다시 재신임을 받음으로 그 권한이 회중들에 의해 통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장 힘써 할 관계는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목사와의 관계입니다. 목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기에 목회



이영래 목사가 지난 1년간 겪은 교회 갈등을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

리더십이 무너진다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 건강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교회 일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적 IMF와 같았습니다. 모든 과거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노회의 전권위원회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어 건강한 구조를 회복했으니 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교회에는 심각한 영적 공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 중 소란행위가 있었고, 거짓과 유언비어, 폭언과 폭력적 행동들이 있었고, 목사에 대한 협박과 사임 압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과 분쟁은 커져 갔고 많은 성도들이 견디다 못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도 그냥 떠나고 싶은 유혹에 직면했지만, 이미 상처투성이가 된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유발한 갈등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로님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무너진 교회의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때려 죽여도 못 나간다”는 각오로 1년 동안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결국 목회는 주먹의 힘이 아닌 땀집으로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막 16:18)”이 바로 이 땀집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인교회에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이 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참고로, 시카고노회는 소란을 일으킨 장로들과 성도들을 직접 처리하는 대신에 그 권한을 새로운 당회에 위임했습니다.

“전권위원회는 소란을 일으킨 교인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심지어 출교할 권한까지 가졌지만 그동안 징계를 보류해 왔습니다. ... “만약 앞으로 하나교회에 어떤 소란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당회가 권한을 가지고 ‘권징조례’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전권위원회 공문 중에서)

노회가 직접 처리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장로의 책임과 권한, 그리고 그 권한의 한계에 대해 몰랐고, 교단 헌법을 몰랐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에 대해 당장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헌법에는 당회나 장로가 목사를 해임할 권한이 없습니다. 목사는 노회 소속이기에 목사를 해임하는 것도 노회의 권한입니다. 이를 위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장로들이 목사를 내보내는데도 그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장로교회는 장로의 교회라는 황당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에게는 목사를 해임하는 권한이 있고, 목사가 독주하지 않도록 견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가 뭔지도 모르고, 장로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지극히 무지한 발상인데도 모두가 무지하니깐 그런 발상이 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직하는 분들은 헌법상 장로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성경적 장로상에 관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장

로는 성도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고 설거지 하고 청소하고 가장 낮은 태도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로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든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욕을 얻어먹고 영광은 주님께 돌리며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3년하고 쉬든지, 6년하고 쉬든지 하는 겁니다. 권세를 부리려고 하면 절대 쉬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장로라는 자리지만, 섬기려고 하면 혼자서는 계속할 수 없는 자리가 장로라는 자리입니다.

장로님들이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도전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함께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설거지 하고, 기도하고, 심방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는 더 이상 목사와 장로의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분쟁이 끝났는데, 분쟁이 끝나면서 목사님의 느낌을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교회의 분쟁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갈등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인테그리티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과 그것을 지키려는 교회의 방어전입니다. 사단은 교회의 인테그리티를 무너뜨리기 위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다 보면 결국 모두가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때리면 맞고, 역을해도 잡아야 하고, 다급해도 정직해야 합니다. 노회가 해결해 주려 들어왔으면 노회가 판결을 내려 줄 때까지 노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내 권위를 인정 받으려면 나도 내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목적으로 싸운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테그리티,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겨도 패배한 싸움이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더러운 승리를 부추깁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인테그리티를 지켜 내는 것입니다.

(김준형 기자)

성탄을 축하합니다!

감사한인교회

담 임: 김영길 목사
6959 Knott Ave., Buena Park, 90620
T: 714-228-9540 F: 714-521-4636

“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

성탄을 축하합니다!

함께하는교회

담 임: 최성철 목사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함세배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hc.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옥균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일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4부 청년 오후 2:0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오후 7:30,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토)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일 목사, MARY KM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4055 Schaefer Ave., Chino, CA91710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달영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EM)예배: 오전 10:30(토)
 수요일예배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토)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비전교회
 담임: 이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Alpha 저녁 7:30
 중고등부 오전 11:30 새벽기도 5:30(월-금), 6:00(토)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http://www.visioncc.org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90012
 T. (213)-975-1111 / F. (213)975-1357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더운터문 4기 Crocker St.)
 1부기리예배 오전 7:00
 2부세타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주일)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시온성증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995-2868 / F.(714)995-0169

씨니사이드교회
 담임: 조인수 목사
 1부예배 오전 09:00 금요찬양집회: 매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요일-금요일
 영어예배 오전 10시 오전 5시 30분
 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의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스교회
 담임: 안창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중고등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62) 944-8082

에바다선교회
 담임: 이승준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7:00
 (월-금) (1,3,5매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384-4272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춘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화-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축복교회
 담임: 김인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음)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정오 12:30(분양)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위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 한기총 제17대 대표회장에 길자연 목사 선출

압도적 당선, 첫 소감은 “화목과 일치 위해 일할 것”

21일 압도적 지지로 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된 길자연 목사가 “한기총의 안정과 발전, 화목과 일치 위해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3차 실행위원회에서 길자연 목사는 총 186표 중 125표를 얻어, 59표를 얻은 김동권 목사(진주교회 원로)를 제치고(무효 1표) 당선됐다. 길 목사는 지난 2003-2004년 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했으며, 이번이 3번째 취임이다.

길자연 목사는 “저는 오늘의 당선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한기총의 역할을 위해서 부족한 저에게 주신 사명의 일화이라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앞서는 일 없이 하나님



길자연 목사가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는 가운데 흰색 칠판에 각 후보의 득표수가 보인다. 기호2번이었던 길 목사의 득표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 김진영 기자

뜻 따라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팀플레이를 할 것”이라며 “여기에 맞추어 모든 공약을 기초하며, 이 시대가 한기총에 바라는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서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길 목사는

“2003, 4년에 봉직하던 시대에 좌파 정부와 더불어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변의 위협도 느끼고 고통스런 환경에서 밤잠 설치며 2년을 보냈고, 그 때문에 지병을 얻어 고생했다”며 “아마도 한기총이 다음 회기에는 안정

적으로 부흥 발전을 이루어,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약자들을 돕고 이 시대 사악한 세력들로부터 건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단계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기총 모든 관계자들과 언론에 감사를 표하며 공약 사항은, 한기총 정관 및 시행세칙 명확화·내부훈련 조정·한기총 전국지부 조직·한기총 회관 건립기금 조성 및 대지 확보 등 한기총에 대한 많은 공약을 내세웠다. 또 기독교 통일기금 조성, 통일 이후 한국교회 사역 준비, 주일 국가고시 철폐운동 및 사학법 문제 해결, 이단문제 단호 대처, 템플스테이 관련 조율, WCC 유치 관련 갈등 조정, 대·중소교단 화합과 배려 등도 제안했다.

〈이대웅 기자〉

한기총 규탄 기자회견 변명도 못하고 끝나

교단장들 서명도 없이 서둘러 성명 발표하고 마무리

예장 통합 등 일부 교단 관계자들이 20일 백석총회 회관에서 장재형 목사와 변승우 목사의 견과 관련, 한기총 이단 해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틀 만에 내놓지도 못하고, 변명조차 못하다가 서둘러 끝났다.

이들이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예장 합동, 통합, 백석, 고신, 합신 5개 교단 총회장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들의 서명은 돼 있지 않았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기총이 이단을 해제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강력 항의했으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단옹호자로 규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박형택 목사는 장재형 목사가 재림주 이단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설교

에서는 경계 및 주의 요청이었는데 왜 이단 해제를 규탄하는 성명서에 장 목사를 넣었느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했다.

이들은 본래 백석교단의 정책 발표 기자회견으로 위장하여 기자들을 모은 뒤, 정책발표와는 전혀 관계 없는 한기총 이단해제 규탄 성명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특히 자신들에 우호적인 특정 언론사들만 오게 한 뒤 여론을 선동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명 발표에 참여한 교단 관계자들은 대부분 모 후보 선거 캠프에 참여해 있는 인사들로 알려져 있으며, 이단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한 한기총 관계자는 이번 성명서에 대해서 “사이비 이



백석총회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CD와 녹음테이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 기자가 장 목사나 그의 제자들이 ‘장 목사가 재림주라고 발언한 것이 CD나 녹음테이프에 있느냐’고 하자, 박형택 목사는 “그것은 잘 모르겠고, 노트에 ‘재림주 비슷한 것이 있다’고 얼버무렸다.

이에 사회를 본 이치우 목사가 그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하라며 쟁점을 피해갔고, 본지 기자는 “재림주라 했는지의 여부가 이단성의 핵심이니 그 점을 분명히 하자”고 요구했으나 더 이상 답변을 회피한 채 쟁점을 피해갔다.

결국 박형택 목사는 스스로 장재형 목사에 대해서 자신이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잘 안다고 주장하고 증거 CD 등 자료가 있다고 무성한 소문을 퍼뜨렸으나,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난 것이다.

또한 본지 기자가 장 목사는 합신에서는 교류 및 참여금지, 통합

단감별사들이 특정인을 고립시키기 위해 써 왔던 수법을 한기총을 대상으로 쓰고 있다”고 쓸쓸해 했다.

한편 본지 확인 결과 이번 성명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몇몇 교단장의 경우, 금번 성명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성명에 참여한 모 단장은 장 목사에 대한 발표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했으며, 자신은 장 목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명서 문안이 그 동안 최상경 목사 등이 주장해 온 것과 일치하는 점도 누가 성명서를 작성했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상경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 장소에 잠시 나타났으나, 기자회견이 시작된 뒤 갑자기 그 모습을 감췄다.

〈류재광 기자〉

한기총, 장재형 목사 “이단성 전혀 없음” 으로 종결

본지 설립자인 장재형 목사(WEA) 북미 이사로서, 2014년 WEA 총회 한국 유치에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이다. 한기총 이대위에서는 장 목사의 통일교 관련설에 대해 2004년(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이대위원장 오성환 목사) 1차 조사에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고, 일부 음해 세력의 반발로 진행된 2005년(대표회장 최성규 목사, 이대위원장 한명국

목사) 재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해 세력들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재림주 의혹까지 제기했고, 이에 2009년(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이대위원장 고창곤 목사) 1차 조사에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으며, 이번 재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려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

이 문제를 야기시킨 일부 음해 세력들은 장 목사가 이단 규정된 바도 없는데도, 한기총 이대위가 이단을 해제한다고 거짓 선동해왔다. 이들은 또 자신들끼리 한기총에 조사 청원을 해놓고 동의·체정하고서는, 막상 조사 결과가 나오자 “왜 그런 결론을 내리느냐”는 비상식적·비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명예훼손으로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단이라고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처럼 한기총의 판결에 흠집을 내려고 시도했다.

한편 이날 이대위는 임원회에서 변승우 목사(큰믿음교회)에 대해 교리적 차이가 있을 뿐 이단은 아니라고, ‘하나 되는 기쁨’의 경우 “반기독교적 음란서적이며 양승훈, 정동섭씨의 현혹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류재광 기자〉

임원회의서 이대위 조사 보고 결의



한기총이 17일 열린 임원회에서 이대위 보고를 모두 결의했다. © 류재광 기자

장재형 목사는 합동복음의 증경총회장이자, 한기총이 가입돼 있는 세계복음연맹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본원은 최고의 교수진과 동영상 강의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수업이 가능하며, 수료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회 교단에서 목사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특 전

-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함
-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사를 면제함

구비서류

-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회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박용덕 목사

OC교협 회장, 남가주빛내리교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2:14)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땅에 예

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지만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전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

섬김과 나눔의 성탄절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된 복된 사건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시려고 궁궐이나 큰 성

신 것은 인류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사 평화를 갖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이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안다면 우리 역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성탄절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벌써 몇 년째 세계적인 경제 불

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

이요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많이 힘들지라도 형제들 간에, 이웃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하며, 특히 2011년 새 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크게 쓰임 받는 성도들과 교회들, 가정과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성일 목사

샌버나디노교협 회장,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2:14)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은 인류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사 평화를 갖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이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안다면 우리 역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성탄절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벌써 몇 년째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

Merry Christmas !



더글라스 김 대표

HYM:청년연합단체

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많은 어려움을 넘겨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 합니다. 어느덧, 다사다난 했던 2010년을 보내며,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생각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성탄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이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07년 이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시작 되었던 극심한 불경기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정도는 불경기가 계속되어 질 것이며, 내년에는 2010년 보다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사업체, 주택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금하게 하며, 시기와 질투가 심하며, 동성연애와 결혼을 합법화 시키며, 마약과 도박이 성행하며, 심지어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Christmas를 'Merry Christmas'라 하지 못하고 'Happy Holidays' 라는 표현을 써야하는 악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 된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속한 곳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를 계산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같이 고통을 분담하며, 같이 울고 기뻐하며, 떡을 나눌 수 있어야만 비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는가?"를 물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도움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베푸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하는 믿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 되어질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뜻을 기르는 복된 시간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누며, 즐거운 성탄절 맞이하세요!



독생자 예수의 오심을 찬양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지만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된 복된 사건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시려고 궁궐이나 큰

우리의 상황이 많이 힘들지라도 형제들 간에, 이웃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하며, 특히 2011년 새 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크게 쓰임 받는 성도들과 교회들, 가정과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양진 목사

벧추라교협 회장, 옥사나드연합감리교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잡혀서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고 했는데, 이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 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걷힐 날이 올 것이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 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어둠 속에서 고통 받던 백성에게서 그 어둠이 걷힐 날이 올 것이다. 어둠 속에

지역 사람들을 천대하며,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백성들이 큰 구원의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땅에 비친 큰 구원의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서 해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이사야9:1-2)는 것입니다. 스블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소위 죄인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자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던 것입니다.(마4:12-16)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처한 상황은 마치 스블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곳에 앉아 있는 자들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큰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앉은 이 땅에 그 큰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드름 고민 해결!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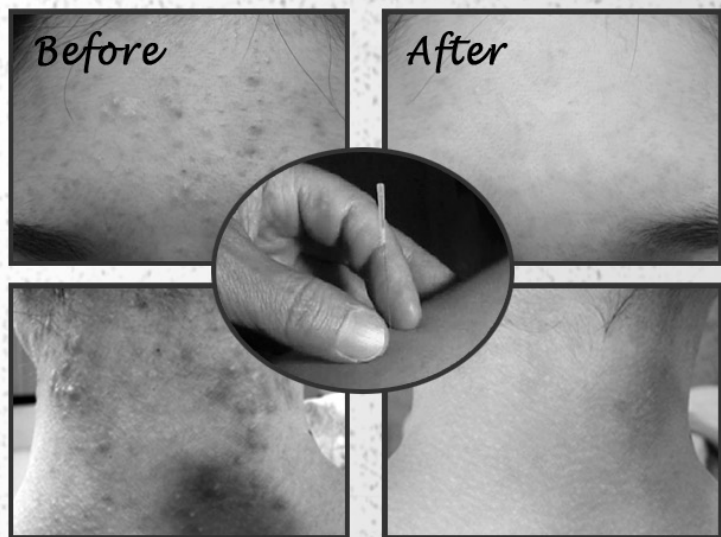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과 대학 교수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T.213-380-0853



배현수 목사
워싱턴교협 회장

어둡고 추운 이 계절에 밝은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

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전체에게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모든 분들에게 힘

이 바뀌어 부요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 사람들을

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은 혼자 가만히 숨기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므로 우리의 공동체가 밝아지고, 새로워지

다운 사랑 이야기의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장작 난로 앞에서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서 나누던 그런 따뜻하고, 정겹고, 훈훈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2장 10절-11절)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을 복돋워 주는 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고, 걱정이 바뀌어 감사가 되고,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연약함이 바뀌어 강함이 되고, 패배가 바뀌어 승리가 되고, 가난함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끝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 너

내게 오신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은혜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고, 활기차게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도 이 땅 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로 수를 놓아서 아름답



정인수 목사
미중앙로교 한인총회장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기쁨이자 희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아직도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연평도 포격과 같은 전쟁의 소식도 들립니다. 미국의 비밀 외교 문서가 온 세상에 폭로되어 세상이 어수선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소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보여 줍니다. 우리 모두들의 신앙을 재충전하는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매년 15,000~18,000명이 하나님을 주신 생명들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포기합니다. 오늘날 삶

의 의욕을 잃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때때로 범죄나 자살의 충동을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의 암흑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과 비전

영원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을 좀 더 고상한 신학적 표현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자연의 법칙에 따르자면 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

성탄의 메시지

의 상실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을 바르게 인도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들의 절망과 암흑의 삶에서 생명의 빛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14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로고스 찬가’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는 바로 말씀이 육신되었다라는 진리입니다. 영원자가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무한자가 유한한 세상에 들어 오셨습니다. 참으로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의 사건입니다.

은 일종의 영적 본질의 영역에서 물질적인 영역으로 전이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육신된 것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하는 이 땅 위에 지극히 무기력하고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수용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구체적인 옷을 입고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 누군가 죄가 없는 의인의 피가 흘러져야 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의 강보에서 시작된 발걸음이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도 의미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경제적인 한파가 닥친 기록적인 한 해였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실의에 빠지고 좌절의 낭떠러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아직도 용기와 희망 그리고 비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힘차게 2011년을 향하여 응비하시는 크리스찬 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영진 목사
RCA한인총회장

성탄메시지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 보내며 고통과 절망의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

서 죄와 어둠에 갇힌 영혼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과 이민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과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와 가난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류복현 목사
남침례교한인총회장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여

2010년은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려 우리 나라가 최초의 원정 16강에 오르는 기쁨을 토해 한국인이란 누구 할 것 없이 기뻐하고 자

랑스러워했습니다. 2002년에 이어 2022년에도 한국에서 월드컵 유치권을 원했으나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무산된 듯 합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으나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모두 고국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연평도에 투하된 북한의 포 사격은 모든 국민들을 경악케 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사랑한 두 군인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간인 사망자와 사상자 그의 가족 그리고 연평도 모든 주민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OPEN 7 DAYS A WEEK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

블랙앵거스 프라이머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Boston Hub Dental & Implant Center 보스턴 덴탈 & 임플란트 센터

10년 임플란트 식립 경험 전문 치과의사와 보철 전문의사가 최상의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물 제작임플란트 성공은 적절한 임플란트 식립과 치주 처치 및 보철물 제작에 달려 있습니다.

무통 임플란트	잇몸 절개 없는 임플란트	* 턱터 박상용 보철 전문의	* 턱터 최인호 임플란트 전문의
수면 임플란트 (V Injection)	드릴 없이 심는 임플란트	안과 의사와의 협업 보스턴 치과대학 졸업	보스턴 임플란트 과장 수료
발치 즉시 임플란트 및 즉시 보철 제작 (Case by Case)			

* PRP & PRF 시술 (임플란트 주위 골 생성 촉진)

오픈기부 특별할인 임플란트 \$999 (limited 보철포함)
검진 + X-Ray + 클리닉 = \$40

치과 이식 • 보철치료 • 신경치료 • 구강외과 • 보철환양: PPO, HMOA
치주치료 • TMJ (악관절장애, 소음현상) TEL: 714, 638, 4042 / 714, 638, 2141 (한국어)
보톡스 (주름, 근육에 의한 사각턱) • 치아교정 13031 Kerry St., Garden Grove, CA 92844



Pacific General Insurance Agency, INC.
태평양 종합보험 (주)

비싼 보험료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세요?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사업체와 개인보험 위험을 없앨수는 없지만
보험료 비용은 낮출 수 있습니다. (LIC# 0G17850)

상업보험전문 / 중업원상해보험 / 개인보험 / 생명보험 / 건강보험
호텔, 그로서리, 세탁소, 상가건물, 아파트, 식품마켓, 교회보험, 각종비즈니스, 상업차량, Surety Bonds

☎ 323-378-6213 - Toll Free: 877-393-2311
451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동양선교교회 앞)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0월 29일, 12월 19일 시험대비 CDP 치과기공 면허 응시생 모집
CDT 치과기공 면허 준비반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가톨릭기속성 학생모집 (약스, 포셀린, 메탈 모델)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윌셔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LA캐atering

주말 점심메뉴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Church Set (교회용식사) Menu D를 보십시오.
편리한 예약 상담/ 신속한 전적 서비스
www.lacatering.com

카레라이스 \$1.00 (1인당)
짜장소스 \$1.00 (1인당)
유채 콩나물국 \$1.00 (1인당)
김자 미역국 \$1.00 (1인당)
아재 비빔밥 \$1.20 (1인당)
고기 비빔밥 \$1.80 (1인당)
육개장 \$1.5 (1인당)

1-800-530-5660 / 1-800-711-0776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넥,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사과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상점 및 그라자용
Bottleless Shelving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리움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323) 855-5687 / (213) 200-3050
646 S. San Pedro St. LA CA 90014 (산페드로 St, 6가 7가사이)

블라인드 커튼 전문 업체 MR 박은철 찾아주세요!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1.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2.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3.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4.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스탠튼대학교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Value Windows & Doors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일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철공 콘크리트

방수,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텍,
지하, 창문
물새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CAP CONSTRUCTION
213-327-9929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TEL : 213-381-0081, FAX : 213-381-0010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1월 3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캘리포니아 라노대학교
California university llano

T: 714-490-0065 F: 714-333-4990
520N. Brookhurst St.Ste.120 Anaheim CA92801
www.californiauniversityllano.org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풀러신학교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TEL : 213-440-0125
1325 12th Ave. LA CA 900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p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굿바이 Choo's 플랜

3개월 할인혜택 추신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행사기간 12월13일~12월31일 까지

놓치지 마세요!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한국 포함 국제전화 무제한

지금 가입하시고, 더 많은 혜택을!

1 한국에 가족이 있으세요? **무료**

My Korea Number
마이 코리아 넘버

한국에서 국내통화 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

2 국제전화 휴대폰 사용이 많으세요? **무료**

iTalk Global
아이토크글로벌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3 **선평비 \$9.99 무료**

4 **개통비 \$29.99 무료**

Merry Christmas!

추신수 글로벌 플랜 \$9.99/월 TAX 포함

- 로컬, 미국/캐나다 장거리, 한국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추신수 글로벌 플랜 \$14.99/월 TAX 포함

-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olidays

...HYUNDAI HAS IT

2010년 모델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재고 총정리 세일

목회자 자체 용자 및 원가 세일

현재 남가주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거나, 없으셔도 자체 용자 해 드리거나 원가 세일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년 pre-owned 쏘나타 한정)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2010년 NEW 엑센트



2010년 엑센트 GS (VIN # 172818)
정상가 \$17,995 **세일가 \$13,999**

(INCLUDE REBATE 10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196)



2010년 NEW 엘란트라



2010년 엘란트라 GLS (VIN # 093924)
정상가 \$17,795 **세일가 \$12,9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396)

2010년 엘란트라 GLS (VIN # 055411)
정상가 \$18,610 **세일가 \$13,8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311)

2010년 엘란트라 GLS (VIN # 053362)
정상가 \$18,690 **세일가 \$13,8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391)

2010년 엘란트라 SE (VIN # 091984)
정상가 \$19,360 **세일가 \$14,2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661)

2010년 엘란트라 SE (VIN # 090605)
정상가 \$19,410 **세일가 \$14,399**
(INCLUDE REBATE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H.M.F.C 1000 PH D/C 1,611)



2010년 NEW 제네시스



2010년 제네시스 쿠페 2.0T M/T (VIN # 041505)
정상가 \$25,625 **세일가 \$21,599**
(INCLUDE LOYALTY 10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126)

2010년 제네시스 쿠페 2.0T M/T (VIN # 042493)
정상가 \$23,225 **세일가 \$19,699**
(INCLUDE LOYALTY 10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636)

2011년 신형 제네시스 (VIN # 113840)
정상가 \$38,485 **세일가 \$32,899**
(INCLUDE COMP. OR LOYALTY 15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3,186)



2011년 NEW 쏘나타 GLS



2011년 최신형 쏘나타 GLS (VIN # 157254)
정상가 \$21,254 **세일가 \$18,199**
(INCLUDE LOYALTY 500, MILITARY 500, COLLEGE 400, PH D/C 1,681)

상기 모든 모델을 어느 딜러보다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재고를 보유한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품위있고, 쾌적한 넓은 매장에서 친절한 각국의 세일즈맨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진심으로 만족 하실 것입니다.

12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이외에도 사고 없는 딜러가 보장하는 많은 중고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원가 공개 세일



2009 HYUNDAI ELANTRA BLUE STK P755456 **\$14,990**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 P018925 **\$28,900**



2007 BMW 328i WHITE STK PZ70863 **\$22,888**

- 매니저가 원하는 중고차 세일 -

- ▶ 2007 HYUNDAI AZERA GRAY STK P185167 **\$17,888**
- ▶ 2008 HYUNDAI AZERA BLACK STK P332058 **\$20,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GRAY STK P046436 **\$29,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SILVER STK P019812 **\$28,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WH **SOLD** 048693 **\$34,888**
- ▶ 2010 HYUNDAI SANTA FE GRAY **SOLD** 7186 **\$21,888**
- ▶ 2009 HYUNDAI SONATA BLACK **SOLD** 0119 **\$13,888**
- ▶ 2010 HYUNDAI SONATA BEIGE **SOLD** 165 **\$15,888**
- ▶ 2010 HYUNDAI SONATA WHITE **SOLD** 7224 **\$14,888**
- ▶ 2008 HYUNDAI VERACRUZ WHITE STK P057661 **\$22,888**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 한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타운에서 20분 거리



찰리 정



스티브 정



앤디 김



지니 안



존 김



한국어 상담 제니 김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let you return it. One owner for details.